

이스라엘은 죽지 않는다

(출 12:37-42, 14:26-29)

1.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능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을 100%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바로와 그의 신하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홍해에 빠져 죽든지 뒤에 있는 애굽 군대에 죽든지 분명히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홍해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애굽 군대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어떤 장애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후 4:8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쌘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마 26:52-5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2. 선민이 애굽을 떠난 것은 애굽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백성이 되어 바로에게 충성하려 했으나 바로가 온갖 고통을 가져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서 잘살고 하나님 없이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였으나 마귀가 미워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시험이 많고, 교회에도 시험이 많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사탄에게 죄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고난은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별 어려움이 없으면 잘하는 목회자 아니고,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상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민족의 탄생과 위대한 왕, 지도자의 탄생은 애굽에서 바로의 손길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430년 만의 출애굽은 전무후무한 바로의 탄압에서 출발합니다. 한순간에 60만 명의 장정이 라암셋에서 니산월 15일에 출발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도 잘못이 없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미워하는 10명의 형들(1대 10)과 감옥이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공로자였으나 사울의 무지막지한 핍박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왕의 탄생의 새벽별이며 사인(sign)이며 무지개가 된 것입니다.

4.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에게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무런 적도 없고 핍박과 고난도 없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행하였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몸은 해방되었으나 마음은 바로의 종이었고 애굽의 죄악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보이는 애굽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안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애굽이 있고 바로가 있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갔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롬 7: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롬 7:24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마 23: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지식과 교육 문화가 발달할수록 페인트(Paint) 문화만 발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영혼의 애굽, 심령의 바로의 왕국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롬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0-11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애굽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가야바,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보이는 애굽을 멸하고 바로를 멸해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의 애굽을 이긴 사람은 밖의 애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애굽이 있으면 안과 밖이 다 애굽 사람이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겉으로는 애굽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지리적으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거나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고 이스라엘처럼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는 애굽을 떠난 것이며, 모든 저주와 멸망과 죽음의 바로에게서 해방된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으나 안에 있는 애굽으로 멸망했습니다. 안이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 국가, 가정, 개인의 흥망 성쇠는 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멸망도 동독의 멸망도 쿠데타나 외부의 침략이 아닌 안에서 병들어 멸망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다 동일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에서 출세를, 애굽의 행복을, 애굽의 기쁨을 구하고, 애굽에 목적을 두면 교회에 나와도, 봉사를 해도, 직분을 가져도 그는 애굽 사람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광야 생활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 만남, 가족, 이웃,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배려, 사랑, 감사뿐입니다.

♪ 찬송가 390장 ♪

1.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아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2. 때때로 괴롬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3.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4.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 [후렴]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 찬송가 391장 ♪

1.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2.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3.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4.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 [후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 찬송가 393장 ♪

1.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2.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3.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 [후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 찬송가 384장 ♪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같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